



보도시점

2026. 10. 20.(화) 13:00

배포

2026. 10. 19.(월) 16:00

국가AI전략위, 강원서

‘AI 기본의료·교통·데이터센터’ 정책현장 방문

- 하정우 부위원장, 평창 의료취약지 찾아 ‘AI 기본의료’ 현장 점검
- 강릉 ITS 세계총회 장관회의 기조연설 통해 AI 기반 미래 교통 혁신 강조
- 폴리텍 강릉캠퍼스 방문 및 지역 AI 기업 간담회 통해 인재양성·지역 AI 산업 현장 의견 청취
- 동해 AI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및 LS전선 방문,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과 전력 공급 방안 논의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10월 19일(월)부터 10월 20일(화)까지 이틀간 강원 평창·강릉·동해 일대의 AI 정책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동해 GS AI 데이터센터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AI 기본의료, AI 교통, 청년 AI 인재 양성 등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주요 과제가 ‘5극 3특’의 한 축인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평창] 평창군보건의료원,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메우는 'AI 기본의료' 현장 방문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평창군보건의료원을 찾아 디지털 혁신센터(강원디지털헬스케어센터)를 둘러보고, 평창군의 의료 AI·디지털 헬스 적용 사례와 비전을 들었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약 복용 관리, 운동 분석·추천 등을 제공하는 AI기반 스마트 만성질환 및 노쇠예방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하안미 보건진료소로 자리를 옮겨 원격 협진 등 디지털 헬스가 의료 취약지 주민 진료에 쓰이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날 평창 방문에는 위원회 서준범 AI 기본의료 소그룹장이 함께했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의료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AI가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평창의 사례를 더욱 발전시켜 전국 의료 취약지에서 국민 누구나 AI 기본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강릉] 도시정보센터 스마트시티 운영 점검 및 ITS 세계총회 장관회의 기조연설

강릉으로 이동한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기조연설에 앞서, 개최 도시 강릉의 지능형교통체계(ITS)가 실제로 운영되는 강릉 도시정보센터를 찾아 CCTV 통합 관제 등 스마트시티 운영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어 총회 행사장에서 강릉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들은 뒤, 장관회의에서 ‘AI로 생각하는 교통, 모두를 향한 이동’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AI가 바꿀 교통의 미래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릉에서 열리며, 이번 장관회의에는 13개 국가·국제기구의 장·차관급 인사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 [강릉]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청년 실습 현장 참관 및 'AI 시대 일자리' 대화

이후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를 찾아 학교법인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AI 실무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전기제어과, 스마트자동차과, 산업잠수과 등 주요 학과 실습실을 차례로 돌며 청년들의 현장 교육 과정을 참관하고, 학생들이 가진 진로 고민을 경청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 제가 준비하는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한 학생의 질문에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AI는 인간의 직업을 단순히 대체하기보다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도구”라며, “현장에서 갖고있는 기술 역량에 AI 활용 능력을 더한다면, 어떤 산업 현장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저녁에는 강릉 지역 AI 스타트업 대표들과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지역에서 AI 기업을 운영하며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동해] '3대 메가프로젝트' 동해 AI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및 LS전선 시찰

이튿날인 20일(화)에는 동해시를 찾아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동해 AI 데이터센터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GS동해전력에서 데이터센터 조성 계획과 전력·용수 수급 계획을 듣고,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내 예정 부지를 둘러보았다. 동해 AI 데이터센터는 2029년까지 총 2.4GW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총투자비는 약 30조 원으로 GPU·메모리 등 장비를 포함하면 약 12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LS전선 동해공장을 방문해 초고압직류송전(HVDC)·초전도 케이블 등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관련 기술과 생산 현장을 살펴보았다. 이후 동해시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의 주요 현안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동해 AI 데이터센터는 ‘AI 3강 도약’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전력·용수 확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과제들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역 인재양성과 전문인력 고용, 지역기업 참여 및 연관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기업·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며 “AI 대전환의 성과는 기술 발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과 지역 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의료 취약지 주민부터 기술을 배우는 청년, 대규모 투자에 나선 기업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범정부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AI 인프라지원팀	책임자	팀 장	민자영 (02-2224-4181)
		담당자	사무관	김중훈 (02-2224-4183)
		담당자	사무관	유승희 (02-2224-4189)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